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에서의 ‘정온(靜穩)’의 의미 고찰

Review the concept of ‘Jeongwon(靜穩)’ on the view point of soundscape

장길수† · 백건종* · 박사근** · 신훈***

Gil-Soo Jang, Gun-Jong Baek, Sa-Keun Park and Hoon Shin

Key Words : Concept of Jeongwon(정온의 개념), Soundscape(사운드스케이프), Sound Amenity(쾌적성), High Acoustic Quality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진동규제법을 비롯한 각종 소음진동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정책의 목표에 기술된 ‘정온’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에서 나타난 소음의 개념과 쾌적성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자의 ‘정온’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온’은 조용함으로서 양호한 음환경 조성의 기본 요건이지만, 그것만이 절대적 의미의 정온이 아니며 high acoustical quality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포함되고 원하지 않은 소리를 마스킹할 수 있는 유쾌한 환경까지를 포함한 상대적 의미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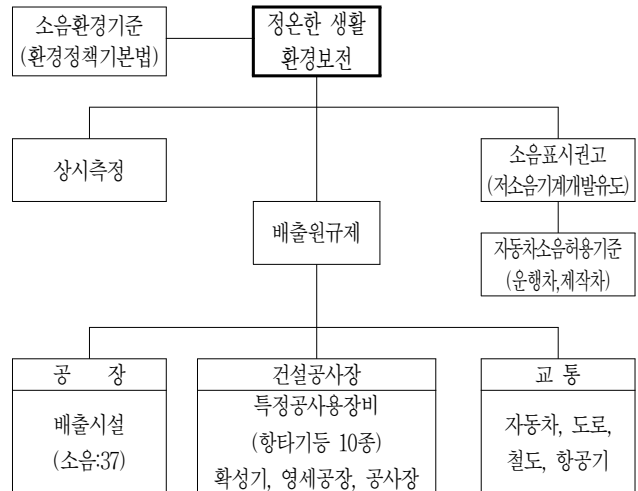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의 목적에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 환경의 관리 보전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 하위 법에 해당하는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1. 서론

소음정책을 기술하는 각종 규정이나 대책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라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제대로 정의되고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혼재된 개념으로서 막연하게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온(靜穩)이란 사전적 의미는 ‘고요하고 평온함’이다. 고요(stillness) 또는 정적(calm)으로 표현하기에는 소리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며, 쾌적성과 연계하면 부적절한 의미로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개념의 실마리를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에서 찾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음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2. 소음 관련 규정에서의 ‘정온’과 ‘쾌적’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소음진동 발생을 제어하고 규제하는 개념이 깔려있어, 소음레벨의 저감이나 소음규제지역(교통소음 및 생활소음규제지역)지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정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소음의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장길수, 동신대 문화건축학부
E-mail : gsjang@dsu.ac.kr
Tel: (061)330-3123, Fax: (061) 330-3103
* 동신대 대학원 석사과정
** 동신대 대학원 석사
*** 전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그러나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곧 소음의 규제이고 이것이 곧 정온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환경부의 환경소음진동개선 중장기계획(2002 ~ 2010)에는 소음·진동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감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의 도입으로 정온한 환경 조성
- 소음이 적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의 설정
- 건물인동간격의 조정, 활엽수목의 식재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 일본의 경우 1993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생활소음대책모델도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이나 자연을 관찰, 표현 등의 활동을 통해 도시환경의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소음방지를 계몽하고 있음
- 유럽, 일본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해 저소음자동차 개발에 대한 보조금, 조용한 마을 시범사업, 건물에 대한 차음보조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단순히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진동관련 정책의 목표나 소음진동대책으로서의 ‘정온(靜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찾는 실마리로서 R. Murray Schafer가 제창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쾌적한 환경의 의미 고찰

3.1 Schafer의 소음문제 인식

우리 주변의 소리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제시한 R. M. Schafer가 소음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제시한 내용 등을 토대로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음문제를 음악의 문제와 같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음악의 소재를 樂音에서 그 이외의 소리로 확대하여야 한다.
- 소음문제에 대해 음악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소음공해는 인간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될 때 생기는 것으로서 소음이란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게 된 소리이다’라고 말하고 가장 본질적 원인을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방법 그 자체에서 찾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음이 범람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현대인의 청취태도에 있어서 ‘음악에 대한 편향적, 음악이외의 환경소리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 음악의 소리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미적 청취활동을 일상적인 소리환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소음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시에 일상의 생활공간에 숨겨져 있는 매력적인 다양한 소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세계와 인간의 소리세계에 대한 ‘미적 infrastructure(인프라스트럭처)’에 책임을 가져야할 음악예술가의 활동이 제도적, 추상적 공간에 제한되었다.

· 음악활동의 최종 목적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 자체에 눈뜨게 하기 위한 시도이다.

· 사운드스케이프란 음악가들이 스스로 외면하고 잘라 내버린 현실사회의 소리환경과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컨셉이다.

· 현대인들이 청각이라는 지평에서 스스로를 둘러싼 세계의 현실에 똑바로 직면하기 위한 컨셉이 사운드스케이프이다.

즉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개념이 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쾌적의 의미

쾌적(快適)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다소 애매하고 그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의미와 내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표현하면 ‘①몸과 마음에 알맞아 기분이 썩 좋음. ②(심리적 용어로서) 쾌감(快感)을 일으키는 조건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유기적(有機的)인 상태¹⁾이다. 즉 ‘고통이나 고뇌가 없는 상태’ 또는 ‘기분이 좋아 만족하고 있는 상태, 심신이 좋아져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쾌적이라는 음감에서는 ‘대단히 유쾌한 기분의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의 이미지 연상 이외에 건강이나 능률, 쾌락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온열환경분야에서는 차갑고 추운정도를 감각적으로 표시하여 comfort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그 우리말 의미로서 ‘기분이 좋음, 즐거움, 위안, 만족’으로 느낌을 중심에 두고 있다. ASHRAE(미국냉난방공기조화협회)에서는 열적 쾌적상태를 ‘환경조건에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that condition of mind which expresses satisfaction with thermal environment)’로 정의하여 매우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condition of mind)를 의미하고 있다.²⁾ 달리 말하면 ‘쾌·불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쾌적이라는 의미를 영어에서 찾아본다면 comfortable, pleasant, delightful, agreeable 등으로 해석되지만 이들은 각기 독립적 이라기보다는 ‘유쾌하다’, ‘기분 좋다’, ‘즐겁다’ 등이 포함된 포괄적 기분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

1)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1985.

2) ASHRAE HANDBOOK, 1989 Fundamentals, p.8.16

다.³⁾

‘쾌(快)’에 관한 표현에는 쾌적(쾌적성, 쾌적감), 쾌, 쾌감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쾌적이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태가 좋고 생리적으로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생리적 중성 또는 그 보다 약간 변위한 환경) 또는 그것에 어떠한 종류의 자극이 가해진 조건에 대한 쾌한 반응이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편안함’, ‘휴식’, ‘평온함’ 등의 다른 말로 표현되는 상태이다. 이 때에는 부교감 신경활동이 우세하며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적(static)이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소극적이며 생리적인 쾌(comfort)이다. 따라서 쾌적이란 불쾌의 상극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3.3 sound amenity의 개념

쾌적한 음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조용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용함이란 ‘소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소리는 작으나 듣기 싫은 소리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소리에 대한 감각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불쾌음에 대한 개인차보다 유쾌음에 대한 개인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쾌적한 음환경은 조용함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운드 에메니티라는 개념은 좋아하는 의미가 내포된 소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로 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면 거리의 활기를 들 수 있다. 축제소리 혹은 상점가의 활기있는 분위기 등 도시민의 활기찬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의해 에메니티 공간이 형성된다는 사고인 것이다. 즉 음환경에 있어서 쾌적성 즉 사운드 에메니티는 소리의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마음의 안정, 즐거움, 유쾌함 등을 어느 만큼 느끼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⁴⁾ 에메니티란 환경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환경의 쾌적성은 조용함, 아름다움,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기타 삶의 질과 같이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의 발생을 인식하는 과정⁵⁾에는 외적, 내적 요인이 무수히 관여하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결국 사운드 에메니티란 음환경의 유쾌함, 쾌적함, 즐거움 등을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비일상적인 생활에서 실현시키는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쾌적한 음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함과 아

울러 도시의 에메니티를 구현하는 일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정온(靜穰)’의 의미 고찰

‘정온’의 사전적 의미는 ‘고요하고 평온함’이며, ‘고요’의 영어표기는 ‘정적(靜寂)’의 뜻으로서 stillness, silence, hush, quiet(ness), quietude이다. 또한 ‘평온’은 ①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 ②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는 안온한 상태로써 영어표기는 calm, tranquility, peace, serenity 등이 된다. 사전적 의미에는 주로 조용한 상태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온’에 내재된 의미를 사운드스케이프 분야에 관계된 3인의 연구자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 그 공통된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4.1 Minoru Sasaki의 견해⁶⁾

정온의 의미를 ‘정숙(靜淑), stillness’로 표현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 특정지역에서 아무런 소리도 없는 적막한 상태 (no sound/ without any sound)
 - Isejingu 사원에서의 엄숙한 Gosenguh 의식
 - Kasugataisha 사원에서의 Wakamiya 축제
- 새로운 소리를 부가함으로써 보다 정숙해지는 상태
 - 작은 핀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더한다.(深山只一聲)
 - 일본 전통정온에 설치된 대나무 장치(Shisiodoshi)가 고요함을 더한다.

4.2 A.L. Brown의 견해⁷⁾

‘정온(quiet, silent)’을 크고 시끄러움으로 평가되는 low-quality의 음환경에 대해 high-quality의 음환경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 예로서 숲의 바람소리, 해변가의 파도소리, 새소리, 교회의 종소리, 고양이 소리, 어린이들 뛰노는 소리 등을 들었다. 또한 외부환경을 3개 영역(자연과 황야 지역, 시골 및 전원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인간의 평가(human appreciation)에 두고 각 영역별 high-quality 요소를 제시하였다.

① 야생동물의 보호

정온의 문제보다는 야생동물의 보호차원에서의 소리규제가 필요하며, 자연음 이외의 모든 인간의 행위에 의한 소리

3) 長友宗重, 1994, 人間の側から見た快適性とは, 日本音響學會誌, 50巻6號, pp.480~484

4) 佐佐木 實, 1993, "音環境に係わるアメニイの考え方, 騒音制御, vol.17, no.4, pp.3~6

5) 小柳武和, 1993, "音環境のイメージ", 騒音制御, vol.17, no.4, p8

6) Minoru Sasaki, 1993, "The preference of the various sounds in environment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soundscape design.", J. Acoust. Soc. Jpa.(E) 14, 3, pp.189~195.

7) A.L. Brown, 2006, "Rethinking Quiet Areas" as "Areas of High Acoustic Quality", Proc. of inter-noise 2006

를 규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② 인간의 평가(appreciation)

선호하는 소리에 대한 조사결과 움직임은 물소리, 자연의 소리(새, 동물이나 곤충, 바람소리 등), 다른 사람들의 소리(목소리, 발소리, 웃는 소리, 노랫소리 등)로 나타났다. 그는 소음을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으로 구분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소리의 내용(contents)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1. high acoustic quality를 만들기 위한 음향조건

구분	원하지 않은 소리	원하는 소리
큰 소리	시끄러운 지역	조용한 지역이 아니라 high acoustic quality인 지역
작은 소리	high acoustic quality가 아닌 지역	조용한 지역과 high acoustic quality인 지역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는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가 공존함으로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를 마스킹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high acoustic quality는 원하지 않은 소리를 원하는 소리로서 마스킹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4.3 이태강의 견해⁸⁾

한국의 전통적인 노랫말을 통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소리 인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詩句 속에 표현된 소리의 의미표현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고요함을 표현하는 소리로서 정원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인 새소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물소리, 가야금 등의 악기소리, 사찰에서 들리는 북소리, 풀벌레 소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소리가 조용함을 더 해준다는 Minoru Sasaki의 견해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소음진동 정책의 목표나 방향으로 표현되는 ‘정온한 생활환경’의 의미를 사운즈케이프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았다. 사운즈케이프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소주의로 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소음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온의 의미는 조용함으로서 양호한 음환경 조성의 기본 요건이지만, 그것만이 절대적 의미의 정온이 아니라 high acoustic quality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포

함되고 원하지 않은 소리를 마스킹할 수 있는 유쾌한 환경까지를 포함한 상대적 의미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지 못하였고, 논리적 배경도 취약하지만 소음진동 정책의 궤도를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며, 추후 의견수렴 및 수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후 기

이 논문은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과 2007년 교육인적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바이오하우징연구 사업단)

참 고 문 헌

- (1) R. Murray Schafer, 1994, The soundscape, Destiny Books.
- (2) 鳥越けい子, 1999, サウンドスケープ[その思想と實踐], 鹿島出版會, 東京
- (3) A.L. Brown, 2006, "Rethinking Quiet Areas" as "Areas of High Acoustic Quality", Proc. of inter-noise2006(Honolulu)
- (4) Minoru Sasaki, 1993, "The preference of the various sounds in environment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soundscape design.", J. Acoust. Soc. Jpa.(E) 14, 3, pp.189~195.
- (5) ASHRAE HANDBOOK, 1989 Fundamentals
- (6) 이태강, 장길수, 2005, "고시조에 표현된 한국인의 소리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15, no.6, pp.724-730.
- (7) 長友宗重, 1994, 人間の側から見た快適性とは, 日本音響學會誌, 50巻6號, pp.480~484.
- (8) 佐佐木 實, 1993, "音環境に係わるアメニイの考え方, 騒音制御, vol.17, no.4, pp.3~6.
- (9) 小柳武和, 1993, "音環境のイメージ", 騒音制御, vol.17, no.4, p8.
- (10) 환경부, 소음진동환경개선 중장기계획(2002-2010)

8) 이태강, 장길수, 2005, "고시조에 표현된 한국인의 소리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vol.15, no.6, pp.724-730.